

시각장애우 소리 신문 '디딤소리' 광주 미디어센터와 공동제작

풍부해진 콘텐츠... "이제 신문다워요"

매월 테이프·CD 제작 배포 등 제작여건 개선
다양해진 코너 장애우 제작 참여... 소식지 탈피

"나보다 남을 더 배려하는 시각장애우가 됩시다. 얼마 전 병원에 가기 위해 심부름센터 차량을 이용했는데요. 조금 늦게 부르니까 다음 회원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는 약속시간보다 늦게 왔죠. 그런데 그 회원이 탑승하자마자 기사님께 항의를 하는 통에 아무 말도 못하고 미안한 마음을 가졌어요. 저도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도로 사정상 약속시간을 잘 같이 맞추기 힘든 운전기사님께 5분의 여유, 5분의 아량을 베푸는 것은 어떨까요?"

이인아 직접 제작에 참여하는 것도 달라진 점"이라고 말했다. 9월호부터 참여한 시각장애인(2급) 이종태(37)씨는 "생활 법률상식 코너의 진행을 맡고 있는데 쉽지 않다"며 "원고를 다 외울 수 없어 독서확대기를 이용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디딤소리' 제작위원은 이를 외에 센터 직원인 서영인(26)씨, 남동봉사에서 시작한 박진(23·광주교대 3년)씨, 기술을 담당하는 설연수(27·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씨 등이 있다.

제작위원들이 다양해지면서 당연히 콘텐츠도 풍부해졌다. 이전에는 연합회 소식을 전하는 수준에서 머물렀던 것이 게스트를 초청하고, 현장의 회원들 목소리로 직접 담는다. 전문 지식 전달을 위해 의학·법학 전문가 2명이 고정 출연하고, 9월에는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역도에서 4관왕을 차지한 시각장애인 보디빌더 남동훈씨를, 10월에는 운동지로서 정옥환씨를 인터뷰했다.

이밖에 '장애인 복지소식', 음식 코너 '맛있는 식탁', 해당 신문의 내용으로 구성된 선물까지 제공하는 '디딤소리 퀴즈', 상식 코너 '아하 그렇구나', 시각장애인들의 에피소드를 각색해 만든 '디딤소리 동화'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독음을 진행한다. 전·현직 아나운서나 리포터, 성우, 연극인 등으로 구성된 남동봉사자 30여명 역시 숨은 공로자들이다. 박진씨는 "평소에는 신경쓰지 않고 살았지만, 소리신문 제작에 참여하면서 시각장애인들의 애로나 생각을 알게 돼 배우는 점이 많다"고 말했다.

이같은 변화는 센터의 제작 참여로 가능했다. 4년 전부터 소리신문 남동봉사자 활동을 하던 센터에서 일하게 된 서영인씨는 "소외계층의 미디어 접근을 지원하고 있는 센터의 사업이 '디딤소리'의 취지와 맞아 떨어졌다"며 "앞으로 시각장애인 외에 많은 소외계층의 미디어 접근이 용이할 수 있도록 센터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종교 칼럼



도일

효도

부양비 때문에 부모가 자녀를 법정에 세우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 장성한 자녀가 갖은 방법으로 부모의 재산을 얻은 뒤, 정작 그 부모가 부양이 필요할 때가 되면 외면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까닭이다.

부모로서 그 자녀를 법에 고소할 때의 마음은 이루 다 표현할 수 없이 괴롭고 안타까울 것이다. 자식을 잘못 키웠다는 자책에서부터 자녀를 매정하게 만든 사회풍토까지 부모가 언어야 할 번뇌는 끝이 없다. 불과 한세대 전까지만 해도 효(孝)는 그 사람을 평가하는 필수덕목 가운데 하나였다. 부모님을 위해서 효도를 잘 한다는 것은 나라에 나아가서는 곧 충성으로 바뀌기 때문에 효는 사람됨의 첫째로 쳤다.

부모와 자녀 간 갈등의 원인은 서로의 욕심에서 비롯한다. 효도를 받으려는 것을 마땅하게 여기고, 자산을 물려받는 것을 당연하다고 여기는 마음이 갈등의 요소이다.

자녀가 효도할 마음이 없으면 받고 싶어도 얻을 수 없고, 반대로 부모의 재산이 꼭 자녀에게 상속돼야 하는 것만도 아니다. 자녀로부터 효도를 받고 싶으면 먼저 부모가 존경을 받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부처님께서는 부모의 도리를 5가지로 나누어 말씀하셨는데 현대어로 풀이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악을 멀리하고 선을 가까이 하게 해야 하고 둘째, 교육을 잘 시켜야 하고 셋째, 가르침을 따르고 예의도덕을 갖추게 하고 넷째, 좋은 아내를 얻게 하고 다섯째, 재산을 현명대로 물려주는 것 등이다.

부모가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서 일반적으로 자식에게 효도를 요구하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이다. 부모 스스로 품위 있는 말과 행동을 하면서 자녀를 인간적으로 성숙하게 길러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한다. 유럽의 명망 있는 가문에서는 아직도 자녀의 의무나 정감, 인간에 같은 것을 교육의 가장 중요한 점으로 삼는다. 물론 이들 자녀가 모두가 교육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영향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부모에게 불효하는 사람도 정작 자신의 자식이 말을 잘 듣지 않으면 애간장이 끊는 법이다. 이런 자신의 입장에 서서 부모를 생각해 보면 어떻게 해야 효도를 잘 할 수 있을지 답이 나온다. 부인이나 자식에게 하는 것의 반쪽만큼이라도 부모에게 할 수 있다면 원망하는 마음이 사라질 것이다. "사람이 천지의 신물을 삼킨다 해도 그 부모에 효도함만 못하다. 부모야말로 최고의 신이기 때문이다"라고 하신 부처님의 말씀 되새겨야 할 때다. (스님·송광사 올원)

콘서트·전시회·작가와와의 만남

광주 원각사 다채로운 문화행사

빌딩 숲 속 도량으로 광주 불자들의 보금자리 역할을 하고 있는 원각사 가을을 맞아 콘서트, 전시회, 작가 초청 등 다채로운 문화 행사들을 마련했다. 7일 오후 7시 광주시 동구 금남로 금남근린공원(옛 한국은행)에서는 북을 이용해 선율을 만들어내는 우리 문화연구회 '소리노리'(단장 김용철)를 초청해 공연을 펼친다. 같은 장소에서 21일에는 히트곡 '그대 그리고 나'의 듀엣 '소리새'가 콘서트를 가질 예정이다. 12~13일 양일간 오후 7시에는 원각사 내에서 창작 무용극 '산사에 부는 바람'을 공연한다. 조선대 무용과 교수·학생과 원각사 신자들이 출연해 불자들의 고뇌를 표현해낸다. 12~14일까지 원각사 내에서 '잡자리 작가' 장영일의 연작 그림 전시회가 열리고, 14일 오후 2시에는 '신진강 시인' 김용택씨를 초청해 '작가와와의 만남'을 갖는다. 문의 062-223-3168.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지난달 27일 광주시 서구 용암동 방송위원회 시청자미디어센터(광주) 녹음실에서 남동봉사자 김희순(맨 오른쪽)씨가 '디딤소리' 2007년 10월호에 실릴 '아하 그렇구나' 코너를 녹음하고 있다. /위적기자 jw@kwangju.co.kr



초보 가톨릭 신자의 고민과 열정

항대권세 세번째 서한집 '바우 올림' 펴 내

육중서한집 '야생초 편지'(도솔)로 감동을 준 항대권(52)씨가 세번째 서한집을 통해 신앙고백을 했다. 이번엔 출간된 '바우 올림'(시골생활)은 저자가 고문 수사와 무기형 선고를 받고 옥중에서 시작한 신앙생활을 지망하게 해준 '디나 자매님'과 주고받은 편지를 묶은 것이다. '디나 자매님'은 저자의 수감 기간 중 신앙생활을 했던 10년 동안 그를 지켜봐 준 '신앙의 거울'이었다. 저자가 호로 사용하는 '바우'는 세례명 '김대철 베드로' 중 베드로가 '돌이나 바위'를 뜻하는 데서 따온 것. 저자가 가톨릭 신자가 된 것은 투옥 이듬해인 1986년께 안동교도소로 이감되면서부터다. 저자는 안동에서 가톨릭 심신단체 레지오 마리에 활동을 하다가 '디나 자매님'을 만났고, 편지를 주고받기 시작했다. 저자의 편지에는 그 신앙을 갖게 된 초보 가톨릭 신자의 고민과 행동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가 노력하는 열정, 재소자들의 신앙생활 모습 등이 담겨 있다. 특히 신앙에 귀의하면서 폭력에 희생됐던 개인의 상처와 분노를 사랑과 용서로 치유해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저자는 편지들이 지극히 사적이고 특정 종교에 국한됨에도 세상에 내놓는 이유가 "역경을 처한 한 인간이 신앙을 매개로 어떻게 두 발로 다시 서게 되는지, 신앙생활을 통해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치열한 고민"이 보편성을 담보한다고 믿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루스터팬츠' (Rooster Panties). The ad features a blue background with a rooster logo and images of various styles of underwear. Text includes '바지속의 마법~ 땀먹는 "루스터팬츠"', '루스터팬츠 숨쉬는 섬유와 분리통풍 설계가 제공하는 신선한 착용감!!!', and 'www.roosterpantis.com'.

Advertisement for 'BM 公認仲介士事務所' (BM Certified Real Estate Agency). It lists services for '특급상가 매매·임대' (Premium Commercial Real Estate) and '노래방 요약 손익계산(최근 3개월)' (Karaoke Summary Profit Calculation). It includes a table of services and contact information: 'www.bm.co.kr', '1577-2787'.

Advertisement for '법원경매 전문회사' (Court Auction Specialist Company). It lists various auction services and provides a detailed table of services, including '근거리/원거리 상점' (Nearby/Remote Shops), '상가주택/주택' (Commercial/Residential), and '입자/농지' (Land/Agriculture). Contact information: '062-222-8446'.